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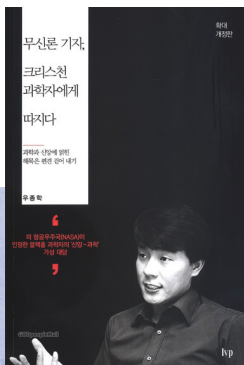
Volume 23 Number 01 2015



유신론적 진화론 – 우종학 편 1

2014년 10월 한국에서는 유신론적 진화론 책이 한 권이 출판되었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우종학, IVP)”이다. 저자 우종학 박사는 예일대학교에서 천체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두 수십억 년의 지구나이와 함께 진화 과정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가 문자 그대로 오류가 없다고 하는 창조과학자를 비판하는 식으로 전개되며, 책의 마지막에는 창조, 첫 사람 아담, 원죄 부분까지 성경과 전혀 거리가 먼 해석으로 마무리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쓴 책이 여러 권 출판되어 교회에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을 미쳐왔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책이 출판된 것이다. 또한 저자는 수년간 KOSTA(북미 유학생 수양회)를 비롯해서 여러곳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실제



로 저자의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로부터 그 동안 많은 문의를 받았던 바 앞으로 두 회에 걸쳐 이 책에 대한 과학적 성경적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글을 통해서 이 책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책들이 등장했을 때 분별력을 갖추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번 호에는 저자의 단어 사용의 오류, 창조과학자 비판, 저자가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다음 호에는 저자가 만든 유신론적 진화론과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잘못된 용어 사용 : “진화론=과학”

‘사실(fact)’이란 단어가 있다. 한 마디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인 별, 지층, 화석, 생물, DNA...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연구 대상을 데이터(data)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현재 모습을 갖추었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들을 보며 ‘해석(interpretation)’하게 된다.

말하지 않는 데이터를 보며 해석해야 하는 것은 창조과학자나 진화론자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어떤 화석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자. 이 화석은 데이터이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과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격변적 심판의 결과로 해석한다. 한편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진화의 과정에 있던 생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기원이나 과거 역사에 대하여 말할 때 데이터와 해석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글을 쓰게 된다면 독자들에게 혼돈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나 과학잡지를 보면 그것이 이 데이터인지 해석인지 거의 구분 없이 나열되어있다.

우 박사의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저자가 단어 사용에 있어서 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통찰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디 서부터 데이터이고 어디서부터 해석인지 혼동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그릇된 용어사용은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이다. “진화론=과학”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나간다. 즉 “진화론”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문장에서 저자는 지속적으로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과학은 진화론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단어다. 과학이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지식체계도 될 수 있고, 방법론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진화론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책의 목적을 “크리스천이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과학을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p. 11)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책 전체를 보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은 ‘진화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학이라고 하면 독자들의 머리 속에는 교과서에서 본 ‘중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과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과학'이란 단어를 모두 '진화론'으로 바꾸어 읽으면 앞으로 저자가 전개하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지적설계 운동가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찾아내어 그것을 설계논증에 사용한다(p. 187)'고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적설계 운동가들은 생물들을 관찰할 때 진화과정(과학이 아니라)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생물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진화 이론 자체는 무신론 혹은 유신론이 아니라 그저 과학이란 말이지. 무신론이나 유신론은 과학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네”(p. 37). 이 문장에서 분명 저자가 진화론과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자는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진화론=과학'으로 규정해버린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도 진화되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은 해석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무신론과 유신론이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 유신론 문제는 신념체계이지 해석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용어의 오용을 알고 보면 진화론과 과학에 대한 그릇된 용어 사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하여 고찰하다', '성경과 과학, 함께 생각하다', '과학과 기독교, 적일까 남일까', '과학의 창으로 창조를 보다'와 같이 책의 소재목에서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책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용어를 오용한 것이다. 모두 과학이란 단어를 진화론으로 바꾸면 정확한 제목이다.

창조과학 사역자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둘 다 과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창조과학자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은 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진화론자와의 차이점은 거기 계셔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분의 “성경”을 갖고 있다는 차이 뿐이다. 과거 사실을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소위 “증인의 증언”을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가 증인을 받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책의 기록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기록을 통해,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그 이후 전 지구를 쓸어버리셨다는 증언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전이화석도 없고 생물들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로 묶여진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모습이 맞아 떨어진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지층과 그 속에 매몰된 화석들을 보며 역시 성경에 기록된 홍수 심판 사건과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유신론적 진화론자의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

저자 우종학 박사는 창조과학을 비판하는데 한 단원을 할애했을 뿐 아니라, 책의 여러 부분에서 창조과학을 비판한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

솔로몬 성전의 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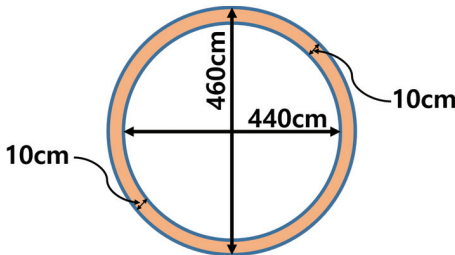
저자는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의 창시자인 헨리 모리스 박사를 예로 들며 그분이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비판한다(p. 110). 그러나 단순히 이 구절만으로 비판할 내용은 아니다. 모리스 박사가 과학 교과서라고 말한 것은 성경이 천체의 위치와 궤도를 설명한다든지, 지구의 구성물질 언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 역사(즉 역사과학)는 거기 세웠던 창조자를 통하여 가장 쉽게 알 수 있으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그 창조자가 계시한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어 열왕기상 7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의 물통(바다) 규격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모리스 박사의 자세를 비판한다(p. 112). 비판 이유는 성경에서 물통의 규격이 “지름이 10자요, 둘레는 30자”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는 지름의 3.14배이기 때문에 지름이 31.4자가 되어야 하는데 30자라고 하는 것은 수학 지식과 위배된다는 말이다. 이 비판은 저자가 KOSTA나 여러 세미나에서 여러 번 거론했던 바이기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는 저자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다. 물통에 대한 설명 중에는 23절의 지름과 원주 외에 26 절에 물통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명시되어 있다. “두께가 한 손 너비(약 10cm)만 하다”고 물통의 두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께를 적용하면 물통의 규격은 성경 기록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1 규빗을 46 cm로 보면, 물통의 외곽 지름인 10규빗은 460 cm며, 둘레인 30규빗은 1,380 cm다. 물통 둘레 1,380 cm를 가지고 역으로 물통의 지름을 계산하면 440 cm ($\approx 1,380 \text{ cm} / 3.14$)가 나온다. 즉 물통 지름에서 20 cm가량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름은 물통 외곽의 지름이며 둘레는 물

통 내곽의 둘레인 것이다. 물통의 두께가 약 10 cm라고 할 때 양쪽을 적용시켜야 하므로, 내곽 지름 440 cm에 두께 20 cm를 더하면 정확하게 외곽 지름인 460 cm가 된다. 이 물통의 규격을 기록하는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3.14(\pi)$ 라는 것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께 또한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없다. 이 때 외곽 지름과 내곽의 둘레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그 두께가 나오니 말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두께가 한 손 너비인 약 10cm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단지 열왕기상 7:26은 무시하고 7:23만을 갖고 “솔로몬의 성전 기구들에 대한 묘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있는 것이지 수학적 원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수학적 원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떻게 물통을 지으라는 정확한 규격이 기록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내용은 기존 크리스천과 창조과학자들 가운데서 이미 설명되어 왔던 것이다(Harold Lindsell, *Battle for the Bible*, 1976, The Zondervan)(Henry Morris, *Henry Morris Study Bible*, 2012, p. 541, Master Books). 저자가 이 물통을 가지고 이 책에서나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그릇된 비판을 주었던 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창조과학은 안식교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창조과학의 출발을 제칠일안식교의 극단적인 문자주의 성경 해석의 전통에서 왔으며 비판한다. 사실 이런 질문은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종종 접하는 질문이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대강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창조과학자들이 홍수지질학을 언급한 안식교인인 맥크리디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 1870–1963)를 따른다고 말한다. 실제로 프라이스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안식교인이다. 그는 과학과 성경에 대하여 높은 지식을 가진 소유자였으며, 그리고 홍수지질학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설명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창조과학자들이 그의 지질학적 해석을 공유하는 것이지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창조과학운동의 아버지인 헨리 모리스 박사도 그의 홍수지질학에 대한 업적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나는 침례교인으로서 그의 종말론과 구원론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History of Modern Creationism, 1993).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안식교에 소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모두 거듭난 크리스천들이다. 단지 과학적 해석에 대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저자는 창조과학자들이 문자적으로 6일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이단인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단으로 규정할 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단 단체로 묶어서 취급하려는 태도가 옳을까, 아니면 오히려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단 규정이 적용 되어야 옳을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6000년 전에는 세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6일 간의 창조를 믿는 그가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자인가?

과연 자신이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며(출 20:11),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출 35:2)? 실제로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으셨는데 안식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는 것일까? 실제로 본인이 안식하지도 않았는데 안식하셨다고 하신 것일까? 그러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누구인가(막 12:8)? 그 분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크리스천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말인가(눅 24:1)? 과연 창세기 1장의 하루를 하루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세기신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내리신 조치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단들은 우리가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성경 기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창조론 사역은 안식교인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해왔었다. 과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루티고 목사 바이런 넬슨(Byron Nelson)의 “돌 속의 홍수 이야기(Deluge Story in Stone, 1931)”는 창조론적 지질학의 뛰어난 책으로 꼽힌다. 그의 “종류대로(After

Its Kind, 1932)”와 “아브라함 이전(Before Abraham, 1948)”도 그의 역작이다.

그 밖에 “진화에 대한 에세이(Essay on Evolution, 1925)”와 “하나님과 우주(God and the Cosmos, 1943)”를 쓴 데어도르 그래브너(Theodore Graebner), “홍수(The Flood, 1951)”를 쓴 알프레드 리원클(Alfred Rehwinkel), “크리스천을 위한 매일 과학(Everyday Science for the Christian, 1947)”과 “창조—사실, 이론, 그리고 믿음(Creation—Facts, Theories, and Faith, 1953)”을 쓴 데어도르 헨드리치(Theodore Handrich) 등(여기서 지면상 모두 소개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다! 가까운 미래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현대 창조과학 역사에 대한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의 세파 속에서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의 위치에서 글을 썼다. 그럼에도 자세한 역사적 연구 없이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경 그대로 적혀있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과학을 안식교에 뿌리를 두었다는 말은 참으로 책임 없는 자세가 아닌가?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과학이 틀렸음을 말한다.

“창조과학자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은 과학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p. 140). 저자는 여기서도 ‘진화론’이란 단어를 넣어야 할 곳에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준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와 방법들을 통해서 ‘진화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도 과학 대신에 진화론을 넣어보라. 창조과학의 올바른 정의로 바뀐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나 화석에서나 전이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생물들을 교배할 수 있는 단위(종, 속, 또는 과)로 묶을 수 있으며,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단위가 바뀌는 예를 관찰하거나 실험에 성공한 예가 없다. 이 결과 진화론은 과학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증거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조과학 내용이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다.

“창조과학은 과학이라 할 수 없네. 과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방법론을 창조과학자들이 제시한 것도 아니고...”(p.139).

저자는 창조과학자의 글을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릴 수도 없는 학문활동을 하



는 알맹이 없는 빈약한 주장이라고 치부하였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창조과학자 중에는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에 논문을 수록한자도 있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라간 자도 있다. 또한 현재도 과학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또한 이런 식의 비판은 과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자세다. 학술지의 수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당시의 우선하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수십 년간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던 것은 창조과학자들의 글만이 아니었다. 지질학적 증거들이 짧은 기간에 격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문은 어느 지질학자든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질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격변에 의해 지질과정이 형성된다는 논문들은 197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등장했고 학계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설득력 문제보다는 분명 패러다임의 문제인 것이다.

저자는 지동설이 등장한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케플러가 타원의 법칙을 통해 수학적으로 지동설을 증명하기까지를 설득력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 사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의 증거를 제시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동설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즉 패러다임보다 설득력이 약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쉽게 선후를 내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지동설을 믿고 있었다면 갈릴레오의 증거들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계 안에서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들 수 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인 파스퇴르(Luis Pasteur)가 탄저균 백신을 개발했을 때 당시 과학자들은 그 백신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덩치 큰 동물들이 현미경에서나 보이는 미생물에 의해 죽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때 설득력이 먼저일까? 아니면 당시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패러다임)이 먼저였을까? 파스퇴르는 이미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수없이 강조했던 바였다.

의학계 가장 큰 발견을 꼽으라면 리스터(Joseph Lister)의 화학 살균을 꼽는다. 그가 화학살균과 감염 차단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음에도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의 방법이 동의하지 않았다. 많은 생물학자나 의사들이 세균은 몸에서 자연 발생한다고 진화론적 해석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설득력이 먼저인가 패러다임이 먼저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 철학자 쿤(Thomas Kuhn)은 분명히 과학계는 가장 큰 전제를 받아들이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전제를 따른다고 했다.

과연 어떤 과학자가 “신(god)” 또는 “성경”을 자신의 논문에 개재했다고 치자. 과

연 그 논문이 받아들여질까? 천문학자인 저자가 진화론적 우주론을 설명하면서 논문 말미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쓴다면 어떤 과학저널이 이 논문을 받아들일까? 지금 자신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 내용도 과학저널에는 실릴 수 없는 것들이다.

아마 저자는 비과학자들에게 전달하는 창조과학의 책만을 읽었던 것 같다. 저자에게 편견을 버리고 시간을 내서 창조과학자들의 기술적 논문들을 편견 없이 읽어보기를 권한다. 여기에는 1차 문헌을 다룬 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유명 논문지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미국창조과학 연구소에 있을 때 그곳 도서관에는 국제적인 학술지를 포함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저널들이 늘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논문을 읽고 계셨던 교수님들을 기억한다. 자신의 편견으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창조과학자들을 거의 매도하는 식으로 글을 서슴없이 써 내려간다.

“창조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과학이 타락했다고 정죄한다”(p. 138):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그릇된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주로 취하는 방법이 과학이 틀렸음을 보이는 것이다”(p. 140):

여기서도 저자는 진화론과 과학을 혼돈해서 쓰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오해를 준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틀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조과학이 담고 있는 과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20세기 초부터 창조론 운동에 근간이 되어온 홍수지질학(flood geology)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p. 139):

창조과학 분야는 홍수지질학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미국의 창조과학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라. 지질학뿐 아니라, 천문학, 생물학, 고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발견할 테니까.

“창조과학은... 성경의 내용들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p. 33):

창조과학자는 성경의 내용들이 과학으로 “증명(proof)”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 별, 생물, 사람과 같은 연구의 대상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의 대상들이 성경의 “증거들(evidences)”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구, 별, 생물, 사람을 보니 성경대로 행하신 증거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들



저자 우종학 박사는 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진화의 증거들을 언급하기도 하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화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그 방식도 제안한다. 책에 언급했던 진화의 증거들을 점검해보자.

화석

저자는 “최근에 진화 고리를 연결하는 화석들이 많이 확보되었고 연결고리마다 비어있던 틈새들을 채우는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p.163)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현실과 완전히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전이화석은 단 하나도 없다. 1980년에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당대 최고의 진화론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160명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이때 스스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화석에서 전이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전이형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최근 진화론자들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창조와 진화 논쟁에 있어서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 이는 바로 창조론자에게 공격을 받을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연 저자는 어디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사실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화석이다. 전이화석으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빠르게 진화가 일어나는 단계에 있는 종들은 안정적 단계에 있는 종들에 비해 화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말한다. 이는 1980년초에 등장한 “단속평형설(Punctuated Equilibrium)”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전이화석이 발견되지 않자 당시 진화론자 리더격인 굴드(Stephen J. Gould)가 만든 이론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간단계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느 순간 진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화석을 남겨놓지 못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전이화석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진화론이다. 이 이론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적지 않은 반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전이화석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저자는 전이화석이 없다는 상반되는 이론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아직 화석과 진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확률

저자는 창조과학자나 지적 설계 운동자나 진화가 일어날 수 없는 증거로 확률을 언급하는 것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창조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이 우연에 의해 작은 생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1/10^{25}$ 라는 식이다. 사실 이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그렇지 확률적으로도 진화가 불가능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확률이란 상대 빈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을 제한 시켜야 적용시킬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요인이 더 늘어나면 더욱더 그 확률이 작아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실제 의도이다. 이런 확률을 사용해서 진화론을 비판하는 자세에 대하여 저자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연이라고 설명되는 현상이 설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하나?... 신이 우연한 사건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 즉 신이 그렇게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p. 92) 여기서 저자는 확률도 하나님께서 하신 설계 방식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복권을 당첨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예로 들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아.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당첨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외부의 통제나 방향성 없이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거든...”(p. 93).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책 뒷부분에 다시 등장 한다(p. 201, 202).

이 부분을 읽으며 필자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정말 기막힌 발상 아닌가? 우연이라는 단어와 설계를 함께 묶는 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발생하기도 거의 어려운, 즉 자연적이지 않은 확률을 통해 진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어렵게 진화시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바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믿기 쉬운가? 여기에 복권 당첨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예가 과연 진화를 통해 생물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적당한 예가 되는 것인지... 불가능한 확률을 통해 진화를 일으킨다고 하느니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유전자

“인간과 침팬지가 매우 유사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과 침팬지가 각각 과거에 같은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p. 166)고 말하며, 특히 둘 사이에 기능과 상관 없는 유사 유전자가 같다는 것을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서 침팬지가 비타민 C를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인간도 동일하게 비타민 C를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저자 자신도 언급했듯이 유사한 모양을 가졌을 경우 그 유전자가 유사한 것은 당연



한 일이다. 그러나 침팬지와 인간은 염색체 숫자도 다를 뿐 아니라 그 격차도 너무 크다. 일반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제외되어버린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다. 실제로 정직하게 비교하면 겨우 70 % 정도만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데이터가 인간과 침팬지의 육체적인 실제 차이와 잘 어울린다. 이 차이는 기존의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차이이다. 또, 대부분의 동물들과 달리 인간과 침팬지가 비타민 C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비타민 C 생산에 필요한 유사 유전자(불완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조상에서 진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유사 유전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고장난 유전자들이 아니라 다른 조절 목적을 위해 존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C 유사 유전자는 쥐의 비타민 C 유전자의 12 부분(exon) 중 4 부분밖에 없어 진화 과정에서 고장이 생긴 결과로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위해 그렇게 창조되었거나 타락과 저주 사건에서 정보를 잃어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폭발 이론

저자의 전공인 천문학 분야에서도 진화론적 우주론인 대폭발 이론을 진화의 증거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주배경복사를 대폭발의 증거로 설명한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 균일한 전자기파가 관측된다는 것을 빼고는 데이터가 아니라 모두 진화론적 해석이다.

예를 들면 저자는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배경복사는 대폭발 직후 우주의 나이가 약 35만 년 되었을 시점에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나갔던 빛을 가리키며...”이나, “우주배경복사를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이다” “138억년 동안 우주는 멋있게 변해 왔다. 중력은 균일했던 아기 우주를 성장시켜 거미줄처럼 엮인 거시 구조로 바꾸어 놓았고, 오색찬란한 은하들이 병합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피고 졌다. 별은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나 산소와 같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우주 공간에 다양한 원소들을 뿌렸다...” (p. 242) 그러나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어나가는 이 모든 내용은 진화론적인 해석일 뿐이다. 누구도 관찰한 적이 없고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도 아니다.

저자는 동일한 페이지에서 “대폭발 이론은 패러다임에서 정설로 자리잡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폭발 이론은 아직까지 결코 정설로 자리잡지 못했다. 2004년 과학저널 New Scientist에서 세계 지도자급 과학자들에게 대폭발 이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 당시 참가한 229명의 과학자들 가운데 이 이론에 동의한 과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저자가 “정설로 자리잡았다”고 한 것은 자신이 이 패러다임에 전적으로 간혀있다는 것

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데이터뿐이다. 적색편이, 우주배경복사, 화석, 지층, 동식물 등... 그리고 모두 이 동일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있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에 대한 분별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어디서부터 데이터고 어디서부터 해석인지 알 수 없게 만들 어버린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과 “진화론”이란 두 단어를 혼동해서 쓰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저자가 믿고 있듯이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화론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탄소의 양이나 아르곤의 양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양을 가지고 자신들에 맞게 선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 어떤 돌들도 수십억 년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어디서부터 데이터고 어디서부터 해석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자와 함께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사실 저자가 언급한 우주배경복사는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의 증거로 내세우는 귀한 데이터이다. 은하들의 우주배경복사는 폭발로는 그렇게 균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창조 첫째 날 언급되었듯이 처음부터 우주 공간에 균일한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와 행성들의 완전한 궤도와 주기 크기는 폭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설계되었어야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대폭발 이론을 갖고 성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펴기도 한다. 이 내용은 다음 호에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시대는 한 마디로 “진화론 시대”다. 그 시대라고 할 때는 나의 어디에 그 시대의 생각이 묻어있는지 모르는 그것을 그 시대라고 생각하면 맞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그 시대라고 하면 거의 맞을 것이다. 오늘날 창조와 진화의 공개논쟁에 나온 진화론자가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떤 내용을 진화의 증거로 내세우는 경우는 없다. 그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모두 진화론을 배우고 산다. 아마 진화론만을 배우고 산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거 거기 계셨던 분이 계시해주신 진짜 역사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며 필자는 내내 이 생각이 들었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이재만 부회장 한국과 중국 방문 마칩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11월 한 달간 한국에서 한동대학교,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 CEO스쿨, 이랑학교 등 학교 강의와 중부명성교회(담임목사 송석홍), 방주교회(반태호), 춘천 예담교회(권기찬), 베이식교회(조정민), 행복한교회(박진성), 유구성결교회(강희승), 예수가족교회(백금산), 온누리교회 이수공동체(담당 김형철), 지구촌교회(조봉희), 서울드림교회(신도배, 김여호수아) 등 교회와 두란노서원, 전주 생터성경원, 컴패션(서정인), 등의 단체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아울러 극동방송과 C-Channel(조병수 총장 인도의 '성경이 답이다')에서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이어 한 주간 중국에서 교회와 단체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종강

시카고 그레이스교회(담임목사: 원중훈)에서 열린 제 16기 창조과학학교는 25명 수료하면서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7기와 18기를 호스트해 주실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회나 단체는 이동용 박사(630-400-61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성 박사 암 수술

지난 10월 최우성 박사는 설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국부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월 중순 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치료과정과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ITCM 시작

제 6기 ITCM이 12월 22일 시작되어 2월 14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훈련 참가자와 도움아들의 건강과 가장 효과적인 시간 사용과 결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후원해 주





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Open 창조과학탐사 안내

아래 일정에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2015년 2월 14-16일(토-월)

경유지: Grand Canyon, Sedona, Mojave 사막

출발: LA 근교, 추후 공고함

참가비: \$340

연락: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562-868-1697)

1/3 순복음 기도원 (이재만), CA
1/5-7 창조과학탐사 (사이판복음교회), 이재만

2/2-10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4-16 창조과학탐사 (YWAM), 이재만
2/17-20 창조과학탐사 (행복한교회), 이재만
2/22 Sunnyside Church (이재만), CA
2/24-27 창조과학탐사 (더사랑의교회), 이재만
2/28-3/1 산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A

4/7-10 창조과학탐사 (R&R), 이재만
4/14-18 창조과학탐사 (수원성교회), 이재만
4/20-26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5/11-14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5/16-21 창조과학탐사 (천안제자교회), 이재만
5/21-28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3-25 창조과학탐사 (ANC은누리교회), 최우성, 김선욱
5/28-6/4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5-6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이재만), WA
6/8-15 창조과학탐사 (Basic Church),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든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